

# 開 會 辭

權 寧 星\*

30주년 기념 심포지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法學研究所 일을 보고 있는 저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서울대학교 法學研究所는 1961년에 서울대학교 法科大學 부설연구기관인 比較法研究所로 발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法學研究所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심포지움이고 이 학술심포지움에서 다뤄질 주제가 「韓國의 法學教育」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진부한 주제이면서 또한 언제나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야 할 참신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진부하다고 하는 것은 이 주제가 지난 날 여러 모임에서 여러 분들에 의하여 너무나도 자주 거론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법학교육에 관해서는 그러한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결론이나 우리 법학계의 合意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학교육도 여러 분야와 마찬가지로 時代와 社會의 차이에 따라 그 時代에 상응하는 교육이어야 하고 또 그 社會狀況에 상응하는 교육이어야 한다고 볼 때, 법학교육의 의미와 방법도 항상 새로운 시각에서 과거를 反省해 보고 새로운 시각에서 改革과 革新을 게을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학술대회의 주제인 「韓國의 法學教育」은 그 어떤 주제보다도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참신한 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학의 영역에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는 연구·교육·실천 내지 응용 등입니다. 오늘 이 심포지움에서는 이러한 법학의 영역 중에서도 교육분야를 논의의 주대상으로 삼고자 합니다. 법학연구분야라든가 實踐法學 내지 應用法學분야인 法曹人選拔制度라든가, 法曹人繼續教育制度 등에 관해서는 저희들 法學研究所가 내년에 또 한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그러한 주제를 다룰 계획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법학교육에 있어서 법학교육의 이념 내지 목표를 定立하고 그러한 교육이념·교육목표에 적합한 합리적 教授방법을 안출하고 민주국가·복지국가의 이념구현에 적합한 교과과정과 법과대학 학과체계를 再整備하는 문제는 우리들 법학도에게 지워진 긴요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쾌한 해답이 오늘 이 심포지움에서 얻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와 같은 우리들 법학도에게 지워진

\* 서울대학교 法科大學 教授(法學研究所長)

## 開 會 辭

공동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오늘의 이 학술심포지움을 위해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발제·사회·토론을 맡아주신 교수님들, 總·學長님들을 비롯해서, 또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학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에게 甚深한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더불어 오늘의 이 심포지움을 物心兩面으로 지원해 주신 教育部, 韓國法制研究院 그리고 서울대학교 本部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이 심포지움이 성공적인 것이 되고 알찬 것이 되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개회인사 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